

리우야 기다려! 태극전사 나가신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한 역대 대표 윤진희의 목에 오프닝 마크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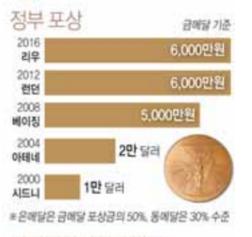
D-17

한국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선수 204명 등 331명 파견
1976년 이후 최소 규모
금메달 10개·10위 목표

“4년을 준비했다. 리우야, 기다려라!”
8월 5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1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결단식을 하고 ‘출격 채비 완료’를 선언했다.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총 200여 개 나라에서 1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출전해 메달을 거두고 또 한편으로는 우정과 화합을 다진다.
우리나라는 선수 204명과 경기 임원 94명, 본부임원 33명 등 총 331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 204명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210명보다 작은 규모로 1976년 몬트리올 대회 50명 이후 최소 규모다. 우리나라는 1980년 모스크바 대회에는 불참했다.
한국은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양궁과 태권도, 유도는 물론 사격과 배드민턴, 골프, 펜싱 등에서도 ‘금빛 낭보’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메달 순위 10위 안에 든다는 ‘10·10’으로 설정했다.
28개 종목 가운데 농구, 테니스, 럭비, 트라이애슬론 등 4개 종목에 불참하며 복싱은 19일 오전 함상명이 와일드카드를 받아 극적으로 출전이 성사됐다.
이번 결단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규 선수단장, 김정행, 강영중 대한체육회장 등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하며 장관 격려사와 선수단장 담사, 단기 수여식,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체육회는 이날 오전 이번 대회 개최식 기수에 펜싱 국가대표 구본길(27·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선임했다. 또 출국 기수로는 사격 진중오(37·KT), 남녀 선수단 주장으로는 진중오와 핸드볼 오영란(44·인천시청)을 각각 선정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인 금메달리스트인 구본길은 키 180cm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사브르 개인전을 2연패한 선수다. 또 2014년과 2015년 국제펜싱연맹 월드컵 개인전도 제패하는 등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 후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국 기수를 맡은 진중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한 베테랑이다. 진중오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도 50m 권총 은메달을 목에 걸어 이번 대회에서 4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여자 선수단 주장이 된 오영란은 1996년 애틀랜타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년 베이징 대회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에 복귀했다. 올림픽 출전이 이번이 5번째로 하계 올림픽 선수로는 이은철(사격), 윤경신, 오성욱(이상 핸드볼)과 함께 최다 출전 동물을 이루게 됐다. /연합뉴스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 포상금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여자골프 금메달 따면
골프협회 포상금 3억원
정부 포상금 6000만원
연금 일시불 67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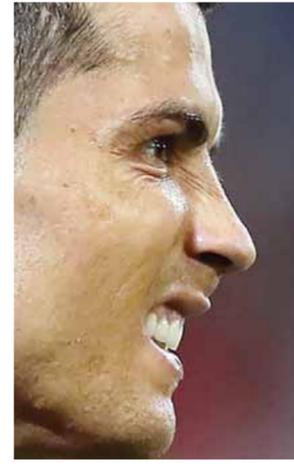
4억2720만원

지구촌 최고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선수 개인은 물론 선수를 길러낸 국가에도 큰 영광이다.
다만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따로 주는 상금은 없다. 이 때문에 각각 올림픽위원회(NOC)는 저마다 포상금을 내걸고 선수들의 ‘꿈의 결실’을 축하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는 6000만원, 은메달은 3000만원, 동메달은 18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선수들이 대부분 아마추어인 만큼 각 선수가 소속된 연맹이나 협회는 물론 소속팀과 소속팀을 후원하는 기업체 등에서 주는 포상금이 덩어리로 들어온다. 또 메달에 따른 연금도 주어지고,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의 ‘산물’도 따라온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명목으로 지급이 확정된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매월 지급된다. 올림픽 성적이 따라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메달을 여러 개 따도 연금상한액인 1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매월 100만원을 초과한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금메달의 일시금은 6720만원이다.
선수가 소속된 지자체 팀에서도 포상금을 준비했다. 육상팀과 양궁팀은 운영하는 광주시도 금메달 700만원, 은메달 500만원, 동메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기단체별 포상금도 짚짚하다. 대한골프협회는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것을 기념해 금메달 3억원, 은메달 1억5000만원, 동메달은 1억원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포상금을 내건 골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문체부 포상금 6000만원, 경기단체 포상금 3억원, 연금 일시금 6720만원을 합쳐 4억2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합뉴스



최지만 빅리그 첫 홈런
텍사스전 솔로포

코리안 메이저리거 막내 최지만(25·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이 빅리그 데뷔 첫 홈런을 쏘아 올렸다.
최지만은 19일 텍사스 레인저스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7번타자 1루수로 출전해 2-4로 끌려가던 5회 선두타자로 나와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뜨렸다.
최지만은 텍사스 우완 선발 투수 A.J. 그리핀의 조구 시속 140km짜리 빠른 볼을 잡아당겨 우중간 스탠드에 직선타로 꽂히는 홈런을 터뜨렸다. 올해 빅리그에 올라와 20경기, 34번째 타수 만에 신고한 첫 대포다.
최지만은 마수걸이 홈런을 날린 동료를 일리리 무시하는 메이저리그 특유의 ‘무관심 세리머니’ 속에 더그아웃에서 허공을 향해 홀로 하이파이브를 날리는 제스처로 큰 웃음을 주기도 했다.
에인절스는 3-4로 따라붙은 6회 텍사스 2루수 루구네트 오도르의 실책을 틈타 2점을 뽑아 5-4로 전세를 뒤집은 뒤 5-5이던 7회 말 주포 마이크 트라웃의 3점 홈런 등으로 4점을 보태 9-5로 역전승하고 4연승을 달렸다.
부진으로 5월 방출 대기 상태에서 마이너리그로 갔던 최지만은 이달 초 다시 빅리그의 부름을 받았고 10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경기 이래 이날까지 5경기 연속 안타를 쳐내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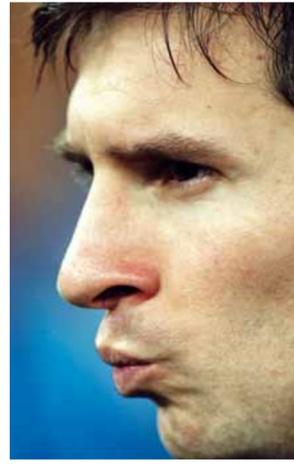
“류현진, 워싱턴전 부진뎀 DL 보내야”

美 LA 타임즈 주장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게 21일(이하 한국시간) 등판 예정인 워싱턴 내셔널스전은 큰 의미를 가진다.
640일 만의 복귀전이었던 8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류현진은 4.2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은 92마일(시속 148km)에 그쳤고, 4회를 넘어간 뒤 공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다.
류현진이 선발 후보가 즐비한 다저스 선발전에서 살아남으려면 21일 등판 결과가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LA 타임스는 이날 “커쇼가 선발 로테이션에 돌아오면 어떻게 자리를 마련할지가 불명확하다. 만약 류현진이 21일 등판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낸다면, 다시 부상자명단(DL)에 보내 팔에 힘을 새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저스는 선발 로테이션 조정이 필요하

호날두-메시 장외 경쟁

UEFA 베스트 후보 10명 발표...내달 25일 선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왼쪽)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2015-2016시즌 유럽축구를 가장 빛낸 스타 자리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펼친다.
유럽축구연맹은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15-2016 UEFA 베스트 플레이어’ 10명의 후보를 발표했다. 이번 10명의 후보는 55개 UEFA 회원국 기자들이 1~5순위로 각각 5명의 선수를 추천해 순위별 1점~5점을 주는 방식으로 뽑혔다.
UEFA는 이들 10명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3명의 후보로 압축하고, 내달 25일 프랑스 모나코에서 열리는 2016-



한국 여자골프 “이번엔 우승”

내일 국가대항전...2년전 부진 씻는다

한국여자골프 군단이 2년 전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보여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각오를 다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의 메리 클럽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8개국(팀당 4명)이 2년마다 격돌하는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이다.
한국은 2년 전 제1회 대회 때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와일드카드로 힘겹게 결승에 진출했으나 싱글 매치플레이어에서 부진, 3위에 그쳤다.
2년 만에 설욕을 노리는 한국은 에이스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해 김세영(23·미래에셋), 전인지(22·하이트진로), 양희영(27·PNS창호),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으로 팀을 구성했다. A그룹에 속한 한국은 사흘 동안 중국, 대만, 호주와 포볼 방식으로 대결한다.
승리하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을 얻는다.
A그룹의 상위 두 팀, B그룹의 상위 두 팀, 와일드카드를 얻은 한팀이 결승에 진출해 대회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어로 우승팀을 가린다. 총상금 160만 달러가 걸린 이 대회에서 우승 팀은 선수당 10만 달러를 받는다.
한국은 결승 진출이 유력하지만 교포 선수인 이민지, 오수현, 베테랑 카리 웰스로 구성된 호주의 전력도 만만하게 볼 수 없다.
B그룹에는 미국, 일본, 태국, 잉글랜드가 편성됐다. 렉시 톰프슨, 스테이시 루이스를 앞세운 미국의 강세가 예상되지만 L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린 에리아 주타누간이 포진한 태국의 상승세도 무시할 수 없다. /연합뉴스

다. 커쇼가 부상으로 잠시 빠진 상황에서 다저스는 최근 마에다 켄타-버드 노리스-류현진-스콧 카즈미어-브랜던 매카시로 5인 선발 로테이션을 꾸렸다.
이중 마에다와 카즈미어는 고정 선발 자원이고, 매카시는 토미 존 수술 복귀 이후 3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1.69로 선전했다. 트레이드로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노리스도 3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3.94로 성과를 보여줬다.
성공적으로 복귀한 매카시처럼 류현진도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만약 류현진이 앞으로 1~2번의 등판에서 메이저리그 타자를 억누를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보직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제 막 어깨 재활을 마친 류현진이 불펜에서 활약하는 게 쉽지 않은 걸 고려하면, 마이너리그에서 선발로 등판하며 경기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연합뉴스